

'말 많은'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강행 시끌

민간업체 특혜 가능성에 사업 담당 순천시 간부 사전취업 논란 조충훈 시장 민선 3기 때도 테마파크 추진...구설수 끝 무산도

순천시가 시의회 '특혜 의혹' 제기에도 1000억원대 민자유치를 통해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거세다.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을 담당했던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순천만랜드 조성 민간업체에 사실상 사전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순천시와 민간업체간 유착 의혹 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충훈 순천시장이 지난 2003년 민선 3기 순천시장 재임 시절에도 '순천만랜드'와 비슷한 규모의 1000억원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해당 업체의 땅 투기 의혹과 자금난 등 갖은 구설수 끝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마파크 재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낙연 전남지사와 조충훈 순천시장은 (주)아이(현 (주)랜드)대표와 대규모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대규모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조만간 민간업체인(주)랜드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계획이다.

순천만랜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계절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관광을 전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30만 9395㎡ 부지에 민간자본 1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돔 형태의 생태환경관과 곤충생태관, 조류생태관 등을 2018년 착공, 2020년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허유인 순천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이 순천만랜드를 국가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유원지로 조성하면 스크린 경마장 등 유해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가능성과 함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현재 순천만랜드 대상 부지를 공시지가의 1.5배로 수용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유원지로 하게 되면 막대한 땅값 상승에 따라 사업자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의원은 특히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인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했던 부서의 책임자로 있다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공로연수 중인 Y 전 경제관광국이 업체(주)랜드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Y 전 국장이 전화통화에서 '정원박람회'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

- 31만㎡ 규모 민자 1000억 투자
- 바이오돔 곤충·조류관 등 조성
- 2018년 착공·2020년 완공 목표

탕으로 공직 퇴임 후 이 사업 책임자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을 하는 등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Y 전 경제관광국장은 6월 말 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이며, 현재 공무원 신분이다. 이와 관련해 B국장은 "아직 취업을 한 것은 아니다"며 "오는 7월에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미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주)랜드를 실무진과 만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앞서 순천시는 현 조충훈 시장이 민선 3기 시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03년 7월에 전남도와 함께 1000억원대 민자를 유치해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다. 당시 순천시와 전남도는 민간업체와 오천동·홍내동 일대 64만6000㎡에 놀이 시설과 골프장, 관광호텔, 콘도 시설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2006년까지 완공하기로 MOU까지 체결했으나, 해당 업체는 갑자기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전남도 등 안팎에서는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인근 땅을 일부 사전 매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일정 이익을 챙겼다는 말이 떠도는 등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꽃 만개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각종 꽃들이 만개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민간자본 1000여억원을 유치해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식물원과 곤충관, 조류관 등을 갖춘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기 천적 미꾸라지 방류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에서 여름철 모기 방제를 위해 모기 천적인 미꾸라지 68kg을 방류했다. 미꾸라지 1마리 기준으로 하루에 모기 유충 1100마리 이상을 먹어치워 모기방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 제공>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순천 첫 걸음

희망순천 페스티벌 주제 '청년'

순천시가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희망순천 아이디어페스티벌' 주제를 청년으로 정하고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순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순천시는 "최근 천태만상 창조센터에서 지역청년활동가 5명, 지역청년지원회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희망순천 아이디어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순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2016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1단계로 오는 19일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려줘' 찾아가는 수다방을 열어 청년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다방은 순천지역 청년 3인 이상이 모여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면, 어디든 찾아가 고민을 나누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오픈테이블이다. 청년정책에 다양한 의견은 청년×순천 페이스북과 시민소통과 시민협담담당(061-749-5607)에게 연락하면 가능

하고, 팩스(061-749-4640)로도 접수할 수 있다.

2단계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상의 필요가 정책이 되는 순간'을 주제로 1단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한 청년 정책캠프가 열린다. 순천시 에코촌에서 열리는 청년캠프는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순천에 사는 청년이면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픈테이블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희망순천 아이디어페스티벌 추진위원회(사무국장 010-2925-2075)에 연락하면 된다. 청년캠프에서는 정책특강, 정책 공감 토론,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발표 등이 이뤄진다.

3단계는 2016년 하반기에 정책캠프에서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순천, 청년을 품다'라는 주제로 오픈테이블 및 정책캠프 참가자, 정책전문가, 행정이 공무원으로 순천청년 정책포럼을 개최해 순천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순천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많이 걷는 순천시민...순천만정원·봉화산 둘레길 덕택

'정원의 도시' 순천시민들이 정원 등 녹지공간을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최근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순천시민들은 건강을 위해 걷기운동을 선호했으며, 걷기실천율은 2014년 42.4%에서 47.7%로 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사람 수로 1만4000명이 늘어난 수치로 동천, 봉화산둘레길, 순천만국가정원 등 시민들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가 관할 지역민들의 건강지표를 조사해 건강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걷기실천율은 일주일에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날과 운동시간을 측정해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더 많은 순천시민이 걷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과 둘레길 등 녹지공간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아랫장·환경아파트 등 상습침수 지역 하수도 정비

순천시는 "아랫장, 남제동 환경아파트 등 원도심 상습 침수피해 지역이 환경부가 공모하는 '2017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역 속원사업인 남제동과 풍덕동 일대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7년까지 지구지정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남제동, 풍덕동 일대 남제배수구역 1.58km는 국비 186억원 등 총 266억원이 투입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제1회 추경에 설계비 일부를 반영해 지구지정 및 설계용역에 착수해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순천시는 생활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분야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조곡동과 덕영동 일원에 국비 25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해 올 4월 착공, 2018년 완료할 예정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시 2016 경제총조사 7월~7월 22일 실시

순천시는 "오는 7월부터 7월 22일까지 2016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고용·생산구조와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 조사로, 정책 수립 및 연구, 경영계획,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순천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2만 3402개 업체이다.

조사는 인터넷과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인터넷조사는 오는 7월부터 30일까지 24일간이고, 방문면접조사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사이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과세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p> <p>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여성</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1세</p> <p>공무원, 교사 32~54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0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웨이문빌 B1D 6층

02) 521-4405

호남 전주시 서산동 지사 063) 275-7766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